

'글로벌 팬데믹 시대, 가보지 않는 길 찾다'

국민연금,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열고 기금이 나아갈 방향 논의

오늘 오후 1시 컨퍼런스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예정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오늘 13시부터 라한호텔(전주시 완산구)에서 '글로벌 팬데믹 시대: 대한민국 금융, 가보지 않는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2020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JIFC)'를 연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네덜란드 연기금 자산운용사(APG)의 사례를 소개하고, 국민연금기금의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참석자는 로널드 뷔에스터(Ronald Wuijster) APG CEO(화상강연), 존 리(John Lee)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요르그 미하엘 도스탈(Jorg Michael Dostal) 서울대학교 교수, 토모 키쿠치(Tomoo Kikuchi) 고려대학교 교수, 허석균 중앙대학교 교수, 한정립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 등이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는 4차산업, 기후변화, 한류 문화 등 경제 신산업 분야를 연계

해 확대 추진하는 지니(GENIE)포럼의 메인행사로 추진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연사 및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홈페이지(www.jif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각 세션별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 금융센터 ▲불확실성의 시대, 국민연금기금의 도전과 미래 등이며, 마지막 패널 토론을 통해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제1세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 금융센터(로널드 뷔에스터(Ronald Wuijster) 네덜란드 APG CEO, 화상강연)'에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네덜란드 APG의 역할과 전략을 소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2세션 '불확실성의 시대, 국민연금

기금의 도전과 미래'에서는 존리(John Lee)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저평가되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의 현실을 지적하고,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토모 키쿠치(Tomoo Kikuchi) 고려대학교 교수와 아시아 이머징 국가의 금융 발전 및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 그리고 산업구조 다변화 및 4차 산업혁명 이슈를 토대로 미래를 예상한다. 중앙대학교 교수의 국민연금을 둘러싼 주요 이슈인 기금소진, 노인 빈곤, 세대간 부담 문제에 대한 토론과 요르그 미하엘 도스탈(Jorg Michael Dostal) 서울대학교 교수의 '가장 오래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연금제도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좋은 시사점 제시도



2020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포스터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 패널토론(국민연금기금의 도전과 미래 전략을 앞선 발표자들과 함께 모색)에는 양준모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교수를 좌장으로 전홍규 재네럴 채보원 서울지점 대표, 장인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록 전북대학교 교수, 한정립 국민

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국제금융 컨퍼런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및 산업트렌드 변화에 따른 세계금융시장에 조성을 위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전북도가 대한민국 금융의 변화를 선도하고 전북 금융산업의 지속성장을 이루도록 꾸준히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상황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공단이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한 정보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전라북도와의 협력해 금융도시 조성을 앞당기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20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는 누구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0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www.jifc.or.kr) 또는 제1회 지니포럼 홈페이지(http://genieforum.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e-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도내 기업 온라인 진출 지원

올해 18회를 맞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코로나19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e-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로 변경해 8월부터 12월까지 열린다.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이번 온라인 e-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온라인쇼룸 플랫폼, 유튜브, 웨비다, 11번가와 온라인 공동 동등 지원을 위한 언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도내 농식품 기업의 판매채널 다변화로 온라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e-엑스포는 우체국쇼핑몰, 웨비다, 11번가, 육선 기획전 코너에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브랜드관'을 운영하고 김치, 청국장, 고추장, 장아찌, 요거트, 치즈, 와인 등 전북의 다양한 발효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도내 250여 개 식품기업의 800여개의 우수제품이 판매되며 모든 e-엑스포 참가 제품은 쿠폰과 할인행사 등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야외행사에서 즐겼던 체험, 식생활 교육, 전시 및 이벤트 등을 엑스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온라인 체험 콘텐츠, 온라인 식생활 교육을 운영하며, 도내 11명의 식품명인을 알리는 식품명인관, 세계 지역별 발효식품을 선보이는 세계발효식품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에게 발효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9월 중에 올 태풍 대비해야

농진청, 과수·벼 수확 서둘러 손실 최소화

병해충 사전 방제·배수로 정비 등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9월 중 제9~10호 태풍이 차례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과수와 벼 수확을 서둘러 손실을 최소화하고 병해충 사전·사후 방제 실시를 지난 31일 당부했다.

제9호 태풍 '미야삭'의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현재 기준 9월 2일 오전 9시 서귀포 남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 들어선 후, 3일 새벽 남해안에 상륙 한 후 부산과 경남을 관통해 오전 9시쯤에는 강원도 강릉 동쪽 해상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초에 수확되는 과수는 열매가 완전히 커 있고, 조생종(같은 농작물 중에서도 다른 것보다 일찍 성숙하는 품종) 벼 등 주요 곡류도 익어가는 시기에 있어 약간의 바람이나 강우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

제9호 태풍 '미야삭'이 앞선 제8호 태풍 '바비'보다 강한 비와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논·밭, 과수원의 배수로 정비와 방풍망·지주시설·노후 시설물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또한 태풍이 오기 전과 지나간 후에

는 병해충 방제를 실시해 세균과 곰팡이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한다.

추석 전 햅쌀로 출하할 벼는 태풍이 오기 전에 서둘러 수확해야 한다. 과수의 피해도 예상되는데 사과, 배, 복숭아 등 수확기에 있는 과실은 크거나 잘 익은 것부터 우선 수확하고, 10월 이후 수확하는 품종은 늘어지거나 유인 끈이 느슨해진 가지를 지주대에 단단히 묶고 바람막이 시설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시설하우스나 축사는 강한 태풍 앞에 맥없이 쓰러지므로, 강풍이 불 때 바람이 새는 곳은 없는지 바람비닐을 살펴보고 찢어지거나 오래된 것은 보수해야 한다. 골조나 축대가 약한 경우에는 보조 지지대를 보강해 시설물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정충섭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은 "올해 봄철 저온과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를 잘 극복하고 수확을 앞 둔 조생종 벼와 과수의 쓰러짐, 열어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태풍 전에 미리 수확하거나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31일자로 제17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김용진 신임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감내한 취임식을 생략한 채 현장경영활동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지속가능 연금제도 조성·기금운용 투명성 강화"

김용진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포부 밝혀 취임식 생략 현장경영활동으로 공식 일정 시작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8월 31일자로 제17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김용진 신임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감내한 취임식을 생략한 채 현장경영활동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이사장은 내부 업무망에 올린 취임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소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국민 모두의 연금, 명실상부한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제도개선과 복지서비스 확대

▲기금운용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및 수익률 제고 ▲사회적 가치 실천 등 4가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먼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라는 두가지 목표가 잘 조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을 기반으로 국민이 바라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울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근로자, 저소득층의 제도가 입 문턱을 낮추고, 보험료 지원제도, 크레딧 제도 등을 강화하여 제도의 울타리를 넓히는 한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도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대상, 지역, 방식을 다변화하고, 이를 위한 조직구조 개편, 투자 지원시스템 고도화 등 운용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나눔 문화 확산, 공단의 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한 금융 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용진 이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소통하는 이사장이 되겠다"며, 공정한 조직, 자발적 혁신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며 "조직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LH전북, 우아동 '전주선변 아중 오지오'

공가세대 일반 분양 2일부터 신청접수

LH 전북지역 본부(본부장 권창호)는 전주 우아동에 위치한 전주선변(아중)오지오 공가세대 56호의 일반분양 모집공고 4일 당첨·예비자 발표 표**를 참조하면 된다.

고를 지난 24일 시행하고 9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전주선변(아중)오지오는 LH가 2009년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10년간 임대한 주택으로 금회 모집공고는 분양전환 후 남은 공가세대 56호(84㎡ 56호, 82㎡ 1호)에 대한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이다.

분양가격은 약 1억7300만원에서 1억9800만원으로 주택별로 상이하다. 당첨자 56세대 및 예비자 22세대를 모집하며, 신청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하고자 인터넷 청약 또는 모바일 청약만 받는다. 신청자격 및 순위별 청약일정은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선순위 모집에서 당첨자 및 예비자 78호가 초과되면 후순위 접수는 마감된다. 당첨자 및 예비자는 9월 4일 LH청약센터를 통해 발표하며 9월 7~8일 서류 제출 후 자격검증이 완료된 최종 계약 대상자와 10월 16일 계약을 체결한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aT,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연말까지 확대·운영

코로나19로 농식품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의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이라는 발 빠른 대처로 올해 8월까지 수출업체들은 기존 수출거래선 유지와 신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봉착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9월부터 12월 선적분까지 확대 운영한다.

특히 하반기에 수출이 집중되는 배, 단감, 사과 등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수출농식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항공운임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지속 상승 중인 점을 감안해 표준물류비 7%를 추가지원하고, 선박운임은 K&G 9원의 수출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따라서 9월 이후 생산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과일류의 본격적인 수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농식품부와 aT는 물류비 추가지원 외에도 온라인 수출상담회, 온·오프라인 판촉, 수출정보 제공, 비대면마케팅 등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내일 대형유통망

입점 온라인 설명회 열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온라인 시장 입점 지원을 위해 '대형유통망 입점 온라인 설명회'를 2일에 연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전북중기청은 도내 많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촉진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의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맞춰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한 비대면 설명회로, 전문적인 강의를 위해 국내 대표 이커머스 회사 중 하나인 (주)메이플에 재직중인 이정주 파트장을 초빙해 진행할 계획이다.

강의를 맡은 이정주 파트장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온라인 시장 현황 ▲온라인 시장 진입 프로세스 ▲지원 프로그램 소개 온라인 마케팅 로드맵 등에 대해 강의하고 실시간 댓글 등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해주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평소, 온라인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은 2일 오후 2시에 유튜브 채널 '위메프이정주'를 검색 참여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2020 고객감사

정기적금 특판' 판매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9월 1일부터 한달간 고객감사의 마음을 담아 '2020 고객감사 정기적금 특판 상품'을 판매한다.

특판적금의 가입금액은 월 1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개인 500만원 이하)로 가입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제, 2년제로 금리는 최대 연 2.00%(우대금리 연 1.00% 포함)이다. 판매한도 500억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적금은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우대금리 최대 연 0.30%(가입기간 2년 기준)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제공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0.70%의 추가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과 전북은행을 사랑해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정기적금 특판을 준비했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100년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서비스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